

# 해남 우수영 거북선 애물단지 전략

전남개발공사 운영

관광객 급격 감소

올들어 11차례 운항 그쳐

예산 낭비...대책 마련해야

전남개발공사가 해남군 우수영에서 운영중인 거북선배가 제대로 운항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옛 조선 수군의 '관옥선'과 일본 수군의 '안택선'을 재현한 배가 흉물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수영 거북선배는 지난 1~2월에는 1회, 5월 8회, 6월 2회 등 올해 들어 6개월간 단 11차례만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3~4월에는 갑판원의 퇴사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돼 방치됐었다.

전남개발공사는 거북선배 운영을 위해 매년 유지관리비로 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고 해남군도 매표소 직원 2명의 인건비에 매년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첫 운항을 시작한 거북선배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



이용객이 없어 방치돼 있는 관옥선(사진 오른쪽)과 안택선.

/해남=박희석기자 dia@

군의 조선 수군이 움지었던 동선에 맞춰 해남 우수영~진도 녹진항~울돌목~진도 벽과진항을 1일 3차례 운항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 감소로 운항 최소 인원인 20여명도 채우기 힘들어 주말 휴일 외에는 배가 뜨지 못하고 있다.

거북선배는 길이 49m, 폭 10m에 368t급으로 174명을 태울수 있으며, 영상과 문화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3D입체영상관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관옥선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 엔진이 없는 구조물인 안택선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문내면 주민 박모(62)씨는 "지난 4월 우수영~제주항 간 쾌속선 운항이후 우수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방치돼 있는 배들로 인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다"며 "전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거북선배 운항 코스를 1곳 더 늘리는 것과 여행을 통한 모객 마케팅을 통해 우수영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분야 한 전문가는 "우수영이 역사적인 명량해전 대첩지라는 점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거북선배 운항을 중지하기 보다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우수영 활성화를 위한 접점을 찾으면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해남 사별가족 힐링프로그램 인기

군 보건소 운영...우울증·자살예방 교육 등 시행

해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별가족 힐링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별가족 힐링프로그램은 지난달 시작됐으며 7월까지 모두 12회 차례 운영된다. 사별 후 1년 이내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병행해 전문 강사의

미술 치료, 원예 요법, 한지 공예, 우울증 예방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를 높은 점이 인기 비결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요원들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우울증 척도를 분석해 정서적 지지 등 개인별 맞춤 상담과 방문을 병행함으로써 변화된 삶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모두 15가족

이 참여해 가족 상실에 인한 말 못할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지난 여름 남편과 사별한 뒤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모(여·56·해남읍)씨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슬픔을 나누고 위안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별 가족들이 하루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블루베리 수확 한창

8일 담양군 수북면 흥경서 부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블루베리 수확에 열중이다. 40여 농가가 120ha를 재배하는 담양산 블루베리는 백화점에서 1kg당 3~4만원대에 인기에 팔리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 명량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리프트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 '길 위의 인문학' 찾아가는 역사탐방

함평도서관, 지역민들과 옹호마을 용신제 등 방문행사

함평공공도서관은 최근 '2013년 길 위의 인문학' 강연과 현장 탐방시간을 가졌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문학 저서와 저자들의 자취가 깃들여 있는 현장을 독자와 전문가가 함께

찾는 탐방행사다.

함평공공도서관은 최권진 시인과 함께하는 '실화로 배우는 함평전지 역사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화성과 지역민 70여명 참가한 가운데 옹호마을 용신제, 아차동 미륵庵, 장산들 백비 등 전설 속 배경지 및 역

사유적지를 탐방했다.

이를 통해 함평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 보고 애항심을 고취시켜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주위의 일상을 돌아보며 무뎠던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임종문 도서관장은 "이번 답사가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독서문화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 완도 청산도에 '작가의 집' 탄생

군, 문화예술인 유치 창작활동 공간 마련

슬로시티인 완도군 청산도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이 생겼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산도에 문화예술인을 유치하고자 신흥마을 옛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작가의 집(사진)을 조성, 본격 운영한다.

작가의 집은 숙소와 작업실을 갖춘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썰물 때면 백사장이 2km나 드러나는 풀등해수욕장 주변에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문화예술인

을 비롯한 일반 관광객도 편안하게 '힐링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문을 연 '느린섬 여행학교'와 연계, 별관으로 운영한다.

관광객과 문화예술인이 소통하는 특색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청산도를 배경으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시인, 소설가, 화가 등 문화예술인을 조만간 초청해 캠퍼를 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진도 하조도 등대 주변

조형물·포토존 등 설치

해양문화공간 탈바꿈

연간 2만~3만명이 다녀가는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등대(사진)가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자연과 희망을 품은 하조도 등대'를 주제로 조도(鳥島)의 특징인 어미 새 날개 형상의 조형물, 포토존, 포토방명록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09년 2월에 처음 불을 밝힌 하조도 등대는 100여년 동안 진도 앞 바다를 지나는 선박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김동태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관내 다른 등대에서도 해양문화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